

6개대 동시합격 전남고 흥민기군,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뚫었다

# 성적보단 꿈 찾는데 투자하라

정신병원 봉사활동, 뇌의과학동아리 메디언스 창설, 대한민국창의혁신 부스 운영, 국제논문 발표, 뇌과학올림피아드 장려상, 대한민국인재상 수상... 전남고 3학년 흥민기 군의 활동과 수상내역이다.

흥 군은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중앙대 의학부·카이스트·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포항공대 등 6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그 비결은 '뭘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에 있었다.

◇1학년, 멘토를 찾아라=흥 군의 모토는 '인문학을 겸비한 뇌과학도'다. 융합과학이 주류를 이루는 21세기에 인문·사회·과학적 적성을 살려 뇌의 비밀을 밝혀내는 게 그의 꿈이다. 그는 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고 한다.

진로가 명확해지자 할 일도 분명해졌다. 우선 뇌과학 기초지식을 쌓았다. 공공도서관 5~6권을 돌려 뇌과학 서적 30여권을 탐독했다.

또 알츠하이머·파킨슨병 등 다양한 뇌신경·정신질환을 접하기 위해 광주시립 인광정신병원에서 1년8개월간 봉사활동을 했다. 뇌질환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몸소 느끼면서,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강한 탐구심도 발동했다.

운도 좋았다. 정신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멘토를 만난 것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과 환자 심리상태를 들려주고, 관련 서적도 추천해줬다. 국내 번역서적이 부족해 원서를 구해 읽었다. 원서 탐독은 어렵고 더했지만, 영어와 생물 공부를 동시에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겨울방학 때는 '2011 한국뇌과학올림피아드' 도전해 장려상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올림피아드는 학문적 연구에도 큰 동기부여가 됐다.

◇2학년, 스펙을 쌓아라=주위를 돌아볼 여려도 생겼다.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친구·후배들



입학사정관제로 서울대·카이스트 등 6개 대학에 동시 합격한 전남고 3학년 흥민기(오른쪽) 군이 서지은 담임교사와 대화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1학년-뇌과학 기초 쌓고 정신병원서 봉사활동

## 2학년-의과학동아리 창설해 각종 대회 도전

## 3학년-입학사정관제에 올인... 인재상 수상도

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의과학 동아리인 '메디언스(Medience)'를 창설했다. 의과학에 관심있는 친구·후배들과 함께 했다.

의과학동아리 활동은 광주과학기술원·포항공대 등 각종 경시대회 참가부터 시작됐다. 경험이 쌓이고 서로의 탐구활동을 수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광주과학문화축전에 참여해 뇌과학부스를 운영하게 됐고, 전국적인 교류·소통의 계기가 됐다.

국제논문에도 도전했다. KAIST 주최 '제3회 국제청소년 학술대회'에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심리학계와 신경생물학계의 상반된 입장을 융합하는 논문을 썼다. 참석 교수들로부터 획기적이고 창의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공금증해소를 위해 KAIST·광주과학기술원 등의 석·박사 전문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조르기도 했다.

예비 뇌과학자로서 흥 군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조대여중 영재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흥 군은 "가장 활동이 많았던 2학년 때 성적이 가장 좋았다"며 "꿈이 있고 동기부여가 되다보니,

바빴지만 놓치는 시간은 없었다"고 회상했다.

◇3학년, 과감히 도전하라=막상 고3 수험생이 되다보니 학교에서 수는 압박이 가해졌다. 수시 합격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흥 군은 자신이 있었다. 수능은 의미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목표는 입학사정관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자기 소개서를 썼다. 그리고, 광고와 용산역 앞 헌책방을 돌며 서울 주요 대학의 옛날 본고사 수험서를 뒤졌다. 심층면접을 위해 서울 대치동 학원 등록도 생각했지만 스스로 도전하기로 했다. 서울대 동영상 등 인터넷 면접 강의로 준비했다.

그 결과, 흥 군은 자연계열 학생들 사이 최고로 꼽는 서울대·카이스트 등 6개 대학에 동시합격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흥 군은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열정·몰입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눈 앞의 성적보다 꿈을 찾는데 시간을 먼저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대 대강당, 지역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40년 만에 리모델링... 사업비 137억원 2015년 완공

한때 광주·전남지역의 최대 규모 문화시설이었던 전남대 대강당이 개관 40년 만에 광주 문화의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전남대 대강당이 현대식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전남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4년 정부예산에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비 137억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대는 대강당 건립 40년 만에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올해 설계를 마치고 2015년까지 건물 외관 및 내부, 무대, 조명 등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1975년 건립된 전남대 대강당은 연면적 5011㎡에 1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1991년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하기 전까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문화시설이었다. 그러나 건물 노후화로 에너지 손실이 커지고

냉·난방시설 및 방음장치가 없어 품격있는 문화예술행사 유치는 물론 대학 입학·졸업식 개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때문에 전남대는 건물 보수 공사를 위해 지난 수년간 자체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규모가 워낙 커 지금껏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번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비 확보는 전남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전남대가 지역과 소통하는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대는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

면 각종 강연과 기념식은 물론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어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병문 총장은 "대강당은 전남대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민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남대는 교육·연구와 더불어 광주의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품격 높은 지역 문화를 만들고 공유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대졸자,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재입학 'U턴 행렬' 증가

## 5명 중 1명 'U턴족'... 현장밀착형 실습·높은 취업률 자랑

대학을 다니고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을 다시 찾는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학장이종태)의 2014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수시모집 등록 결과, 20.9%(325명 중 68명)의 학생이 타 대학에 다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5명 중 1명의 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다시 폴리텍을 찾은 것이다.

이 같은 'U턴 현상'은 올해 뿐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광주캠퍼스의 2년제 학위 과정 수시모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타 대학 입학경험자 신입생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 다니고도 다시 폴리텍에

지원한 학생이 2012학년도에는 전체 지원생의 10.9%(276명 중 30명), 2013학년도에는 16.6%(259명 중 43명), 2014학년도에는 20.9%(325명 중 68명)를 기록했다.

1년제 단기과정은 타 대학 경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광주캠퍼스의 경우 타 대학 경험자 비율이 2012학년도 50%(270명 중 135명)에서 2013학년도 58%(270명 중 157명)로 높아졌다. 순천캠퍼스 59%(390명 중 230명), 익산캠퍼스 40%(330명 중 132명)의 학생 역시 대학을 다니고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시 폴리텍에 진학한 케이스였다.

폴리텍 광주캠퍼스의 인기는 역시



높은 취업률에 있다. 지해남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취업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가 취업률 89.2%를 기록하며 호남권 56개 대학 중 작

년에 이어 또 한 번 '취업률 1위 대학'의 자리를 굳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동부교육장 20일까지 공모

광주시교육청이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전형은 24일이다. 임기는 오는 3월1일부터 2년간이다.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경력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심사항목과 배점은 ▲교육지원청 운영계획서 등 서류 및 발표 심사 30점 ▲면접 심사 40점 ▲상호 토론 30점이다.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희망하는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신청을 받아 참관할 수 있다.

접수 결과 지원자가 1명뿐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1명이면 1명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지원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후보자 모두 공모교육장 자격에 미달하면 공모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편, 차기 동부교육장으로는 윤계숙 교육연수원장, 임주영 서부교육청 초·중지원과장, 장호동 유안초 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대, 글로벌마케터 '신 파이오니어스팀' 최우수

광주대(총장 김혁중)가 무역전문가 양성 및 지역기업들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해 보혜양조·온돌라이프·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등 3개사와 협력해 추진한 글로벌마케터 양성과정에서 이호승(중국통상학과 3년)·문환철(물류유통경영학과 4년)학생의 '신 파이오니어스팀'이 최우수팀으로 뽑혔다.

'신 파이오니어스팀'은 지난 9~10일 담양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열린 담양 글로벌 마케터 성과 경진대회에서 '보혜양조의 중국 진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해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조은비(중국어학과 3년)·김현철(전기전자공학과 3년)학생의 '강남이티'이 '온돌라이프의 편백나무 침대 중국 수출방안'으로, 이지훈(부동산금융보험학과 3년)·조희진(중국어학과 3년)학생의 '맑은 향기팀'이 '보혜양조의 중국 진출 전략'으로, 송다인(중국어학과 3년)·서민철(사건형사학과 2년) 학생의 '장보고팀'이 '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의 한류'를 이용한 중국 관광객 광주유치 방안'으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급매물" 삽니다

1. 경매 예정 / 진행중인 물건
2. 공시지가 50% 선 부동산
3. 기타 급매 부동산

#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20% 보장 투자금 3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